

개념적 은유로서의 서울

- '서울은 그릇' 은유를 중심으로 -

문화콘텐츠학과 201723822 유정현

<목차>

1. 머리말
2. '서울 안'을 향한 욕구
 - (1) 외국인이 포착한 한국인의 '서울 안'을 향한 욕구
 - (2) 한국인의 '서울 안'을 향한 욕구
3. '서울 안'의 가치 vs '서울 안'의 가치
4. 맺음말

1. 머리말

'서울공화국'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¹⁾로,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다. 한국인이란 '서울공화국'이라는 단어는 낯설더라도 그 의미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이 한국의 모든 방면에서 중심인 만큼 대부분의 한국인은 서울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며, 실제로도 그렇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국 국토 면적의 0.6%에 불과한 서울의 인구밀도는 16,364명/km²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으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 5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서울공화국'이 서울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라면, '인서울'은 이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인서울'은 '들어갔다'를 뜻하는 영어 'in'과 '서울'이 합쳐진 단어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또는 그러한 대학에 입학³⁾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입학하면 좋은 일자리를 얻어 성공할 것이라는 한국인의 개념체계를 반영한다.

'인서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사고 내에 서울을 안-밖 지향성을 가진 하나의 '그릇'으로 은유화하는 개념체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기반이 되는 일상적 개념체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은유적이다.⁴⁾ 우리 몸이 피부 표면에 의해 안-밖 지향성을 가지듯, 우리는 다른 물리적 대상이나 자연 환경에도 이러한 안-밖 지향성을 투사하는 것이다.⁵⁾ 이에 따라 서울이 안과 밖을 나눌 수 있는 경계를 지니고 있다는 은유적 개

1) "서울공화국", 『우리말샘』, 2020년 11월 21일 접속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373176&viewType=confirm

2) "국토 면적 0.6% 서울에 전체 인구 5분의 1 거주.", 서울신문, 2016년 09월 16일 수정, 2020년 11월 21일 접속,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916500037&wlog_tag3=naver

3) "인서울.", 『네이버 국어사전』, 2020년 11월 21일 접속,

<https://ko.dict.naver.com/#/entry/koko/434d33d9958d4db7ae2cfec2c5e86464>

4) G.레이코프, M.존슨,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박이정, 2006), 21쪽.

5) G.레이코프, M.존슨,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박이정, 2006), 66쪽.

념체계가 존재하므로 ‘인서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개념은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과 지각체계 등 삶의 전반을 구조화하므로 우리의 일상적인 실재를 규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개념체계를 우리가 항상 명료하게 의식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며 직접 관찰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개념체계를 반영하는 언어표현을 검토함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⁶⁾ 본고에서는 ‘인서울’과 같은 언어표현을 고찰함으로써 오랜 시간 한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서울은 그릇’이라는 은유적 개념체계를 포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 안’과 ‘서울 밖’의 가치 차이와 ‘서울 안’과 또 다른 ‘서울 안’의 가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서울 안’을 향한 욕구

‘서울 안’을 지향하는 사고와 행위는 현대사회에서만 목격할 수 있는가? 비록 ‘인서울’이라는 언어표현은 현대의 한국인이 사용하고 있지만, 서울 안에서의 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시간을 거슬러 서울이 조선의 수도였던 시기부터 존재했다. 이 장에서는 조선 말기에 조선을 답사했던 영국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기행문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과 한양에서 벼슬에 나아갔지만 유배길에 올랐던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묶은 서간집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와 교훈』을 통해 조선시대에 존재한 서울 지향적 가치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의 수도는 한양이지만 본고에서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한양’을 ‘서울’로 표기한다.

(1) 외국인이 포착한 한국인의 ‘서울 안’을 향한 욕구

서울과 관련하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은유 ‘서울은 그릇’과 이를 반영하는 언어표현 ‘서울 안’은 조선후기 끝자락에 우리나라를 여행하며 관찰한 외국인에게도 포착되었다. 그 외국인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영국 최초 왕립지리학회 여성 회원으로, 1894년 1월부터 1897년 3월 사이 네 차례에 걸친 방문을 통해 그 시기의 조선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그녀는 조선의 모든 것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는데, 그녀가 바라본 ‘서울 안’은 오늘날 ‘서울공화국’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처럼 부정적이다.

...어떤 의미에서 서울은 곧 조선이다. 시골에는 특별한 공산품이 없다. 서울의 구색을 갖춘 일용 잡화 상점은 이 나라의 모든 상점의 표본이다. 국가 생활이 무엇이든 그것은 수도에만 존재한다. 서울은 정부의 주소지일 뿐 아니라 공식적 생활이나 모든 공직의 임용, 그리고 채용의 유일한 통로인 문예 시험의 중심지이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서울에서 「잡아 보려고」 항상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울로 끌리는 힘이 있다. 일요일 오후에 양반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면서 큰거리를 걸어다니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관직을 열망하는 사람들이다. 이 나라에서는 여론(輿論) 같은 것이 없지만 그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는 국민 감정은 오직 서울에서만 나타나고 있다.⁷⁾

6) G.레이코프, M.존슨,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박이정, 2006), 22쪽.

7) 원문에서는 “Gusts of popular feeling which pass for public opinion in a land where no such thing exists are known only in Seoul.”이라고 쓰여 있음. Isabella Bird Bishop, *Korea*

상업의 전형이라고 해야 행상(行像) 정도이지만 그나마도 서울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모든 사업도 서울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조선 사람의 마음은 서울에 가 있다.⁸⁾ 관리들은 서울에 별저(別邸)를 가지고 있으며 일 년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그들의 업무를 속관(屬官)에게 맡기고 서울에 와서 지낸다. 지주는 임대료를 받으면서 소유지에 있는 사람들을 「쥐어 짜내지만」 그들은 서울에 살고 있는 부재 지주(不在地主)이다. 음식값을 지불할 수 있거나 노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 년에 한두 번씩 서울에 올라온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위에 관계없이 단 2-3주라도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조선 사람에게 서울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⁹⁾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조선 답사 후 약 120년이 지난 오늘날, 서울은 여전히 한국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는 만큼 서울의 집값은 나날이 상승하고 있으며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올해 10월 기준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을 보면 서울은 8억5696만원, 지방권은 2억196만원이다. 서울과 지방에서 매매된 아파트의 중간값을 비교하면 6억5000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¹⁰⁾ 120년의 세월이 흘러도 서울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의 수는 서울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의 수를 늘 앞지르고 있으며 앞으로 그럴 것이다.

(2) 한국인의 ‘서울 안’을 향한 욕구

정약용은 1762년 경기도 남양주에서 태어나 부친의 임지인 전라도 화순, 경상도 예천 및 진주 등지에서 성장한다. 그는 부친으로부터 경사(經史)를 배우면서 과거시험을 준비하던 중 1776년부터는 부친의 벼슬살이 덕에 서울에 살게 되었다. 1783년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이후에는 서울의 성균관 등에서 수학했으며 1789년에는 마침내 식년문과(式年文科) 갑과(甲科)에 급제하여 희릉직장(禧陵直長)을 시작으로 벼슬길에 오른다. 그러나 1801년 정약용은 천주교 교난 때 유배를 당함으로써 중앙의 정계와 결별하게 된다.¹¹⁾ 그는 1801년부터 약 18년간 유배생활을 하며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중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서울 안’과 ‘서울 밖’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담은 내용이 있다.

중국은 문명이 발달되어 궁벽한 시골이나 먼 산구석의 마을에 살더라도 성인(聖人)도 될 수 있고 현인(賢人)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여 도성(都城)의 문에서 몇 십 리만 벗어나도 태고의 원시 사회가 되어 있으니, 더구나 멀고 먼 외딴 곳이야 말할 바 있겠느냐?

무릇 사대부 집안의 법도는 벼슬길에 올랐을 때에는 빨리 높직한 산언덕에 셋집을 내어 살면서 선비로서의 본색을 잃지 말아야 하고, 만약 벼슬에서 물러나게 되면 빨리 서울 가까이 살 자리를 정하여 문화의 안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and Her Neighbors: A Narrative of Travel, With an Account of the Recent Vicissitudes and Present Position of the Country (New York, Chicago:F.H. Revell Co., 1898), p.59.

8) 원문에서는 “The heart of every Korean is in Seoul.”이라고 쓰여 있음. 위의 책, p.60.

9) I. B. 비숍,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서울:집문당, 2006), 68-70쪽.

10) “계속 집값 오른 결과 보니… ”서울내 양극화는 완화, 지방과의 격차는 커져.”, 조선비즈, 2020년 11월 22일 수정, 2020년 11월 26일 접속,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1/2020112100467.html

11) “정약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0년 11월 26일 접속,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0549

지금은 내 이름이 죄인의 명부에 올라 있으므로 너희들에게 우선은 시골집에서 은둔해 지내도록 하였다만, 훗날의 계획은 반드시 서울의 십 리 안에서 거처하는 것이다. 만약 가세가 쇠락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 살 수 없다면 잠시 근교에 머무르며 과수를 심고 채소를 가꾸어 생계를 유지하다가, 재산이 좀 넉넉해지기를 기다려 **도심으로 들어가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¹²⁾

서울과 지방의 생활을 모두 경험해 본 정약용은 그만큼 ‘서울 안’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체득했으며, 자신의 두 아들에게 이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두 아들에게 서울의 십 리 안에서 수학하고 벼슬길에 오르기를 당부하는 그의 모습은 오늘날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염려하는 지방의 학부모를 연상시킨다. 정약용은 ‘서울’보다 확장된 공간 ‘서울의 십리 안’을 기준으로 ‘안’과 ‘밖’을 구별하긴 했지만, 결국 자식들에게 도심인 ‘도성 안’으로 들어갈 것을 최종 목표로 제시했다. 정약용의 ‘도성 안’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서울’보다 좁은 범위만을 상정한 것이다. 이는 ‘서울 안’에 있는 지역들이 모두 같은 가치를 가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당시 서울을 가리키는 행정구역 명칭이자 수도를 관할하는 관청의 명칭인 한성부는 도성 안과 도성에서 십리까지 떨어진 지역 성저십리(城底十里)까지 포괄했는데, 서울이라는 공간이 도성을 기준으로 성 안과 성 밖으로 나뉜 것은 행정이나 부역(賦役) 부담의 차별을 내포하는 것이었다.¹³⁾ 도성 안의 행정편제는 방리로 구획되었던 반면 성저십리 지역은 한성부에 속한 동시에 고양군이나 양주군에 소속되어 일반 향촌과 마찬가지로 면리제로 편제되었던 것이다. 성저십리 주민들은 도성 안 주민이 부담하는 방역(坊役)과 더불어 향촌민이 부담하는 전세(田稅)와 군역(軍役), 공납까지도 부담하였다. 원래 한성부 주민들에게는 군역과 공물, 전세가 면제되었고, 도성의 유지 관리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방역(坊役)과 토지, 가옥에 대한세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성저십리 주민들은 도성민이면서 동시에 향촌민이었기 때문에 이중의 조세 부담을 져야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도성 안 주민과 도성 밖 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도성 안 주민을 ‘국인(國人)’, 도성 밖 주민을 ‘서민(庶民)’으로 차별하여 인식하였던 유교적 전통에서는 매우 익숙한 것이었다.¹⁴⁾ 이러한 차별대우는 조선 후기 서울이 왕도에서 상업도시로 성격을 달리하게 되며 점차 약화되었지만, 1810년에 정약용이 사용한 언어표현을 통해 조선 건국 시기부터 형성된 도성 안 주민과 성저십리 주민 간의 차이는 해소될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서울 안’의 가치 vs ‘서울 안’의 가치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기행문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에서는 ‘서울 밖’을 기피하고 ‘서울 안’을 지향하는 한국인들의 지역관(地域觀)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을 기준으로 서울과 ‘비’서울의 가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에 비해 정약용의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와 교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서울 안’에서의 가치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이 장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서울 안’과 또 다른 ‘서울 안’ 사이의 가치를 비교하기 위

12) 정약용, ebook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와 교훈』, (서울:문장, 2006)

13) 고동환, 2006, 「조선후기 서울의 공간구성과 공간인식」, 『서울학연구』(26), 1-48, 9쪽

14) 고동환, 2006, 「조선후기 서울의 공간구성과 공간인식」, 『서울학연구』(26), 1-48, 10-11쪽.

해 언중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인서울 대학’이라는 개념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했다.

‘인서울 대학’을 나열할 때, 흔히 비슷한 수준의 인서울 대학들은 하나의 표현으로 묶인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수준은 주로 ‘SKY’(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성한’(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중경외시’(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건동홍숙’(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과 같이 순서대로 서열화되어 나뉜다. 이러한 언어표현은 지리적으로는 모두 서울에 위치했다더라도 각 대학의 수준이 특정한 경계를 기점으로 나뉘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언어학자 페르디낭 소쉬르에 따르면, 한 언어사항의 가치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사항들에 의해 결정된다.¹⁵⁾ 예컨대 ‘SKY’대학의 가치는 이를 제외한 대학, 예를 들면 ‘서성한’ 대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기 전이었다면 각 대학의 수준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지금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서성한’과 ‘중경외시’라는 표현이 형성되기 전에 누군가는 한양대와 중앙대를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소쉬르는 심리적으로 사고(思考)는 단어로 된 표현을 제거하면 무형의 구별되지 않는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¹⁶⁾ 그의 이론에 따라 ‘인서울 대학’ 간 서열화 현상을 설명해 보자면, ‘중경외시’와 ‘건동홍숙’이라는 표현이 없었던 시기에는 서울시립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경계에 대한 우리 시각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처럼 대학 서열을 결정짓는 경계가 불분명했던 상태에서 어느 순간 우리 언어체계에 우연히도 ‘특정 사고’와 ‘특정 음성’을 연결한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이를테면 ‘SKY’, ‘서성한’ 등 새로운 기호가 만들어짐으로써 그 이전의 무형의 상태에서 벗어나 특정 언어단위가 태어난 것이다. 결국 ‘서울 안’과 또 다른 ‘서울 안’은 애초에는 우리의 관념 속에서 경계를 짓기 모호한 대상이었지만, 언어표현을 통해 서로가 구별되어 각각이 하나의 고유한 의미 단위로 정립되고, 서로간의 대립관계를 통해 가치를 획득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맺음말

우리는 왜 관성적으로 ‘서울 안’으로의 진입을 추구할까? 그 이유는 서울이라는 개념을 안-밖 지향성을 지닌 그릇으로 은유화하는 개념체계가 오랫동안 한국인 사이에서 공유됐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 안과 서울 밖의 차이를 오랜 시간동안 경험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표현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인은 서울이 조선의 수도였던 시기부터 ‘서울은 안과 밖의 경계를 지닌 그릇’이라는 은유적 개념체계를 지녀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소통이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체계에 근거하고 있지만¹⁷⁾, 언어로 인해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결정한다는 ‘언어결정론’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누이트족이 ‘눈’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른 언어에서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어서 눈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보다 더 정교하다는 것이다. 언어결정론은 오늘날 학계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론이지만, ‘서울 안’의 가치와 또 다른 ‘서울 안’의 가치를 비교하며 예

15) 페르디낭 드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서울: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236쪽.

16) 페르디낭 드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서울: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228쪽.

17) 페르디낭 드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서울: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22쪽.

시한 표현 ‘인서울 대학’을 통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언어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의를 가진다. 비록 ‘서울 안’과 ‘서울 밖’이라는 경계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개념체계라고 할지라도, 이를 반성 없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Bishop Isabella Bird. *Korea and Her Neighbors: A Narrative of Travel, With an Account of the Recent Vicissitudes and Present Position of the Country*. New York, Chicago:F.H. Revell Co., 1898.

G.레이코프, M.존슨.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박이정, 2006.

I. B. 비숍.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서울:집문당, 2006.

정약용. ebook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와 교훈』. 서울:문장, 2006.

페르디낭 드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서울: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고동환, 2006, “조선후기 서울의 공간구성과 공간인식”, 서울학연구(26), 1-48.

“서울공화국.”, 「우리말샘」, 2020년 11월 21일 접속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373176&viewType=confirm

“국토 면적 0.6% 서울에 전체 인구 5분의 1 거주.”, 서울신문, 2016년 09월 16일 수정, 2020년 11월 21일 접속,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916500037&wlog_tag3=naver

“인서울.”, 「네이버 국어사전」, 2020년 11월 21일 접속,
<https://ko.dict.naver.com/#/entry/koko/434d33d9958d4db7ae2cfec2c5e86464>

“계속 집값 오른 결과 보니… "서울내 양극화는 완화, 지방과의 격차는 커져.”, 조선비즈, 2020년 11월 22일 수정, 2020년 11월 26일 접속,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1/2020112100467.html

“정약용.”,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0년 11월 26일 접속,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50549